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5월 1일(금)

...(음력 4월 9일)...

Пятница

1 мая 2020г.

№ 17(11688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일에는 러시아에서 봄과 노동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으로 행진과 집회 등 모든 대중행사가 취소되었다.

(이예식 기자의 사진첩에서)

## 단신

### 푸틴 대통령, 5월 11일까지 휴업 연장

러시아의 휴무일이 5월 11일까지 지속된다. 당초에 4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모스크바 시간)에 열린 코로나19 감염 위험 확산에 대한 방역 문제에 대해 지역 수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화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연방 국영 방송을 통해 실시간 방송되었다.

또한 5월 6,7,8일은 휴무일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유급 휴가를 언급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더욱이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전에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시켰었다.

감염 방역의 경험으로부터 도입된 지침들이 '이제 내일까지'로는 부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국내 감염 확산의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 사할린 지역에 특별 화재 방지 정책 도입

사할린주 일련의 지역에 특별 화재 방지 정책이 도입된다. 이는 봄철이 지역의 산림과 녹지 지역에 건조한 초목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는 야외에서 불씨가 될 만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때문에 야외에서 큰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소식은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화재 방지 정책은 우글레고르스크와 네벨스크 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조만간 아니와, 코르사코브, 돌린스크시 주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이 유즈노쿠릴스크, 홈스크, 토마리, 스미르니흐 구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 친애하는 여러분!

봄과 노동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명절 행사나 콘서트, 주민들의 나들이 없이 특별한 조건 속에서 이날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오월 첫날의 의미는 그 힘을 잃지 않고 반대로 더욱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존의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주 정부는 어려운 시기에 중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세금 혜택, 융자 개편, 주 및 지방의 자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 기한 연장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입니다. 이로써 사업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과 소득의 원천이 끊긴 분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에게 식품 제공과 추가 지원금, 취업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경제와 모든 주민들을 위해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난관을 이겨냅시다.

저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께서는 부지런함과 책임감으로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명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만사의 형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발레리 리마렌코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15년간 한국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던 '사할린동포 특별법'이 지난 29일(수) 밤 10 경(한국 시간) 열린 20대 국회 종료 앞둔 본회의에서 드디어 가결되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158명, 찬성 15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해졌다.

한편 '너무 오래 걸렸다', 다른 편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대다수의 사할린동포들의 의견이다. 특별법 내용이 모두 만족치 않은 상태이지만 대안(본지 2020년 3월 6일 호 게재)으로 통과된 것으로 이 법안의 세부 내용과 규정은 추후 확정될 전망이다. 이 방면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현재 많은 노력 중이며 이와 관련 요구

안을 준비해 한국 정부와 국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전했다.

"우리는 이 특별법 통과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는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결실이고 이에 30년간 모든 사할린한인사회단체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를 회복하는 데에도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현재 법안의 세부내용을 보충하도록 우리 협회에서 제안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박 회장이 언급했다.

특별법에 대한 KIN(지구촌연대)단체의 최상국 사무국장의 논평은 본지 2면에 실렸다. 이 단체는 수년간 동포 역사 회복,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사할린한인단체와 협력하는 단체다.

(배순신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9월 3일로 연기

원의원 그리고리 카라신, 미하일 코즐로프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와 관련하여 역사적 정의를 보존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영속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당초 1945년 소련 연방 최고위원회

는 9월 3일을 일본에 대한 승리의 기념일로 선포했다. 참전했던 병사들에게 수여한 '일본에 대한 승리' 메달 뒷면에는 이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1947년 이날은 평일이었고 현재는 기념일로서 잊혀졌다고 '노보스티' 러시아 국영언론사가 밝혔다.

### 새고려신문

###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논평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부쳐 -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20년 4월 29일,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특별법')을 제정했다. 사할린한인 동포들이 일제강점기 '동토의 땅'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고 해방 후에도 강제역류된 지 82년만의 '사변'이라 할 것이다.

사할린한인 동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동토의 땅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한인 1세 및 그 후손들이다. 사할린 한인 동포들은 동토의 땅에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온갖 가혹한 강제노동, 폭언과 폭행, 강제격리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일본의 항복선언 후에도 무참히 살해당했으며, 전후에는 서신왕래나 고향방문조차 차단당했다. 이 땅의 강과 산이 8번 바뀌는 동안 어느 한 곳 하소연 할 수도 없었다. 수만 명의 안타까운 영혼들은 지금도 이역만리 고향 땅을 그리며 구원을 해내고 있다.

강제역류된 후 사할린에 남은 한인들, '인도'를 표방했지만 '반인도'적인 영주귀국사업으로 한국에 온 한인들, 사할린에 집안의 가장을 강제로 보내고 비참한 삶을 숨겨왔던 이 땅의 유가족들, 이들의 원성과 절규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이번에 제정된 '사할린동포특별법'은, 1948년 '화태·천도 재류동포 환국운동에 관한 청원'부터 시작해, 1968년 '사할린(화태) 역류교포 송환 촉진에 관한 건의안', 1973년, 1989년, 2011년까지 국회를 통과한 각종 결의안들과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불문하고 15년간의 피눈물나는 과정과 노력을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법률로 제정된 최초의 특별법이란 의미도 있다.

총 7개의 간단한 조문으로 만들어진 '사할린동포특별법'은 몇 가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법은 '사할린동포'에 대한 정의,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했다.

법의 목적대로,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고,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단 7개의 짧은 조문으로 구성된 '사할린동포특별법'은, 현장에서 살아남은 3만여 명의 사할린한인 동포들의 한과 눈물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차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사할린한인 동포들에 대한 사죄,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사할린 한인문제에 대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지금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며, 심정은 이해한다. 다만 전쟁의 결과로서의 현실, 전쟁 후 법적처리는 한국과 조약으로 해결되었고, 소련과는 일소공동선언으로 처리되었다"는 답변뿐이다.

대통령 경축사에서 사할린동포 언급, 러시아 동포간담회에서 사할린 동포 대거 초청, 국회의원들의 사할린 방문 등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사할린한인 동포들의 운명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이 많았다. '사할린한인 동포(2296명 원고) 헌법소원'을 두고, 8년 동안 만지작거리면서도 끝내 정부 측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반칙도 물론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82년, 해방 75주년을 마주하는 오늘도, 잊혀지고 내팽개쳐진 사할린한인 동포들의 피맺힌 절규다. 일제강점기 사지로 몰린 동포들을 보호하지도 돌보지도 못한 역사, 너무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공식사죄하고 풀어야할 역사이다.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라도 국내외 사할린한인 동포들의 간절한 외침과 염원에 귀기울여,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할린한인 동포들의 82년 수난사는, 국가가 방치한 '역사 속의 세월호'이고, 현재진행형이다. '사할린동포특별법' 제정은 그래서 하나의 역사이지만, 이제 그 시작일 뿐이다.

2020년 4월 30일

해마다 대한적십자사의 주최로 정기적으로 사할린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사할린,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로스토브-나-도누, 하바롭스크, 연해주 사할린한인동포 단체들과 한적 관계자들이 회의를 가지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주한인 협회는 사할린동포의 문제 해결에 관한 결의문을 4월 24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예전처럼 보내기로 했다.

##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한국 정부에 보낸 결의문

1.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제》에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손들을 희망자에 한해 영주귀국을 허용하라.
3. 2015년도 이후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대들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라.
5. 부 또는 모 사망자의 모국방문을 추진하라.
6. 징용당한 사할린 한인들의 미지급 임금, 우편예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사할린 한인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라.
7. 1세가 영주귀국 및 일시모국 방문 시 동반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8. 2-3세 들이 영주귀국 한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왕복 비행기료를 지불해 줄 것
9.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 지원하라.
10. 영주귀국하신 부모 장례식에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왕복 비행기료를 지불해 줄 것.

본 결의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러시아 및 일본 정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20년 4월 23일

##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일본 정부에 보낸 결의문

1.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제》에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사할린동포 특별법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 사할린한인이라는 공식적 용어를 정의할 것:

2020년 4월 23일

# 이모저모

## 사할린 주민들 승리의 노래 부른다

사할린 청년들이 전승절 노래를 부른다. 사할린 주민들은 다비드 투흐마노프와 블라디미르 하리토노프의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영상 10편을 이미 보냈다.

청소년 캠페인 <승리의 날>에 연령 만 14세부터 30세까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75년 독일의 나치 패전 30주년 기념일에 작곡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5월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승리의 날'로 표시된 E-메일 rsm-sakh@mail.ru로 동영상 보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8(4242) 47-29-88; 24-04-90(알렉산드르)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спеть о Победе

Сахалинская молодежь поет главную песню Дня Победы.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рислали уже 10 видеороликов, где они исполняют знаменит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Давида Тухманова и Владимира Харитонов.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молодежной акции "День Победы"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записать ролик с исполнением песни, написанной в 1975 году к 30-летию разгрома фаш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6 мая.

Для участия в акц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лагают направлять видео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rsm-sakh@mail.ru с пометкой "День Победы". За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ам: 8 (4242) 47-29-88; 24-04-90 (Александр).

## 사할린의 탐사대 '추념의 교대' 국제 행사에 합류

사할린 탐사대가 국제 행사 '2020 추념의 교대'에 합류해 참가한다.

이 행사는 대조국 전쟁 75주년을 기념하여 4월 23일 영상콘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콘퍼런스에는 러시아 74개 지역의 탐사 단체의 지도자들과 9개국의 역사학자와 연구원들이 참가했다.

행사는 러시아 연방 사회원이 기술적, 조직적인 후원을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러시아 탐사 활동>, <시효의 무기한>, <병사들의 운명> 기획 실행과 러시아 정보탐색센터의 활동과 <2019년-2014년 조국 수호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억 영구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 논의했다.

전례대로 사할린주의 탐사 시기 개최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진행된다. 그러나 올해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었다. 사할린 남부에서 열릴 자동차 경주 행사 시기도 훗날로 연기돼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 남부만 아니라 위도 50도 선까지 다다른다. 각 도시에서는 조국 수호 중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념으로 헌화와 모임이 계획돼 있다.

사할린 탐사대는 <영원한 비행> 기획 실행을 시작했다.

2명-4명의 소그룹들이 돌린스크 구역에서 군용기 추락지점으로 현장 답사를 했다. <영원한 비행>

기획은 전에 사할린주 정부의 장려금을 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기획의 일환으로 탐사 활동가들은 탐사 원정대를 조직하고 사망한 군 조종사들의 묘지들을 정비하고 있다.

원정 탐사 외에도 탐사대는 <병사들의 운명> 기획의 일환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이름 없이 사망한 조국 수호자들의 운명을 알게 하고, 참전용사들의 전투 방법을 확인하는 데 있다.

해당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러시아 탐사 활동> 자원봉사자들은 7년간 15만 명의 소련 병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장례를 치렀고 8천 명 이상의 이름을 밝혀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0년에 연구원들은 2248개의 원정 탐사대를 조직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ие поисковик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ции "Вахта Памяти"

Сахалинские поисковик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ции "Вахта Памяти - 2020". Она состоялась 23 апреля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и была посвящена 75-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К встрече подключились руководители поиск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 74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 историки из 9 стран. Техническую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мероприятия оказала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РФ.

Добровольцы обсудили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Без срока давности" и "Судьба солдата", работу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поискового центра и реализацию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Увековечение памяти погибших при защите Отечества на 2019-2024 годы".

(8면에 계속)

#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 원격수업

### 선생님과 학생 간 영상이나 문자,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들으며 실시간 원격수업 진행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에 따른 예방 조치로 3월 25일 러시아 교육부는 전국 교육기관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사할린한국교육원의 한국어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교사나 학생이나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거라는 예상을 했다.

교육원의 한국어 원격수업은 일단 러시아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2020년 4월6일부터 시작했다.

한국어 강좌는 총 17개이지만 15개 강좌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강사는 8분이 담당하였다. 원격수업은 모두가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었는데, 교사와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테블릿 등을 지니고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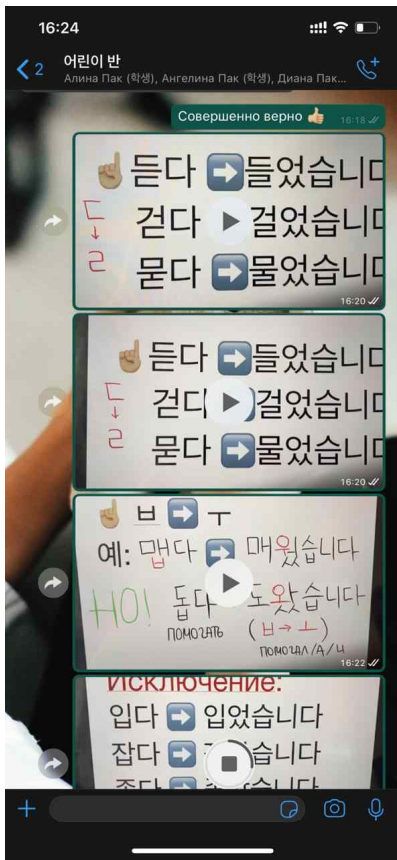
교육원의 원격수업 관련 지침으로 인터넷상 왓츠앱( whatsapp), 에스엔에스( SNS), 유튜브(Youtub), 교육원 홈페이지 등에 수업 영상을 탑재하거나 ZOOM 등,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했다.

원격수업도 교실에서 수업하듯이 학습을 진행하는데 실시간 서로 영상이나 문자,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들으며 일정 수업을 진행하였다. 과제도 내주고 수업 진행할 때 또는 수업 후 과제를 확인하도록 했다.

원격수업이라 해도 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내용을 구성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비했다. 1교시의 수업은 교수·학습시간, 동영상 재생시간, 과제 수행시간, 질의응답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수업 강좌 일정은 기존의 계획대로 하되, 수업시간은 학생과 선생님이 합의하여 실시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45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처음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교과마다 수업시간 1시간을 더 인정하도록 승인을 받아 두었다.

한국어 입문과 초급 단계의 강좌에는 학생들이 90% 이상의 출석률을 보였다.

원격수업의 평가는 과제 수행, 오픈테스트, 문장 녹음 등 다양한 형태로 하고



교사는 평가자료 및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교육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셜 네트워크를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수업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 원격수업 준비 기간 동안 한국어입문 한 반이 원격수업을 운영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선생님이 그 반 학생들을 인계하여 한 반을 더 구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열정을 보였다.

매회마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실시하고 소감문을 써서 교육원에 보내준다. 물론 내용의 양과 질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왓츠앱 수업 그룹에 PPT와 PPT에 있는 문법을 러시아말로 설명하는 비디오,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료를 심의한 후에 연습한 것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숙제도 올렸습니다. 또한 오늘 듣기 연습, 말

하기 연습을 해 봤습니다. 듣기 본문을 음성으로 올린 후에 학생들이 대답을 올렸습니다."라며 한 초급반 선생님이 수업 후기를 전했다.

열정을 가지고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정에 팬데믹(Pandemic/Пандемия)의 위기는 무색해졌다.

교육원 측에 따르면 이번 주에 이병일 원장은, "교육원의 원격수업 선생님들에게, 각 한국어수업반 학생들에게 인사말과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영상을 보내주고, 학생들이 한국어로 답변해서 제 이메일이나 왓츠앱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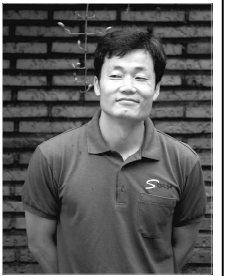
또한 이병일 원장은 "4주간 계속되는 원격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 건강하게, 서로 좀 더 긴밀한 소통 속에 수업 성과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 기원하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말 걱정이 무색하게 열심히 수업하시고, 학생들도 성실히 참여하고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 무척 감사드립니다."는 소감을 표명했다.

(본사 기자)

##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 양송이를 먹는 세 가지 방법

일주일에 두 번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장을 보러 간다. 농촌에서 막 실려온 채소와 과일이 경매를 기다리며 끝도 없이 쌓여 있는 천국이다. 싱싱한데다 싸기도 해서 마음껏 과소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양송이를 큰 상자로 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겨울 양송이가 더 맛있다. 수확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양송이는 버섯갓 안쪽까지 완벽하게 새하얀데 날로 먹어야 제 맛이다. 날이 예리한 칼로 생선회를 뜨듯 양송이를 얇게 썰어 입에 넣으면 촉촉한 것이 바삭하고, 부드러운 것이 오독오독하다. 암전하게 내린 첫 눈 위를 걷는 소리가 보득보득 입에서 느껴지고 은근한 향기는 코로 올라온다.

그런 양송이에 맛을 더하려면 맛있는 고추장이 필요하다. 북어회처럼 얇게 썬 양송이 한 접시에 어머니표 고추장이면 사르르 눈이 감긴다.

이십대에 캐나다에서 몇 달 산 적이 있다. 한국 음식에 별 관심이 없는 목수 아저씨가 집주인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양송이를 썰어 먹는 걸 보고 그 요리 이름은 뭐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살짝 기분이 상해 일단 먹어 보라며 접시를 밀어 주었는데 마침 남도의 친구 어머니가 보내 주신 쇠고기볶음 고추장이 옆에 있었다.

빵에 발라 먹으려고 아껴둔 고추장, 양이 많지 않아서 소심하게 떠낸 고추장에 양송이를 찍어 먹은 주인은 대번에 표정이 달라졌다. 그 뒤로 주인은 내가 양송이를 먹을 때마다 조용히 나타나 식탁에 앉았다.

나는 주인에게 실과의 초록 부분을 잘라서 씹장에 찍어 먹는 맛까지 알려주고 그 집을 떠났다. 뒤에 남은 남도 친구는 주인이 한국 마트에서 고추장을 사왔는데 맛있긴 하지만 어머니 고추장 맛이 아니라고 투덜거렸다는 뒷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싱싱함에 눈이 멀어 충동구매한 양송이는 먹어도 먹어도 상자가 빌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버섯갓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양송이는 구워 먹으면 또 맛있다. 기둥을 푹 때어낸 다음 거꾸로 프라이팬에 구우면 버섯갓에 맛있는 버섯물이 고인다. 조금만 살짝 뿌린 다음 뜨거운 버섯을 입에 넣으면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고 눈은 사르르 감긴다.

끼니마다 프라이팬 가득 양송이를 구워서 결국 상자를 비워버렸다. 그제야 양송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하나 생각났다. 고기보다 과일과 채소를 좋아하는 장모님 입맛은 딸보다 아들보다 사위랑 똑 같다. 양송이를 큰 상자로 사게 되면 곧바로 장모님 덕에 절반을 푹 나눠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싱싱한 양송이를 즐기는 세 번째 방법이다.

광주에서 김남중

## 지난 4월 사할린 주민들 170차례 격리 위반

사할린 상황센터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투쟁을 돕고 있는 가운데 4월에만 170여 건의 격리 위반 사례가 기록됐다.

상황센터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개설되었다. 사할린 주민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 수집과 분석 기구로서 지역의 비상조치들을 실행하도록 하고 통제로 위험한 감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할린 디지털 기술개발부는 상황센터의 작업을 감독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사할린주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과 2주간 격리에 들어간 사람들, 이후 격리 해제된 사람들을 추적 관찰하고 있다. 이외에도 센터는 격리보호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제된 수에 대한 최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매일 격리보호소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체슬라브 알레니코브 사할린주 부총리가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과 홈스크-와니노 행정객선 터미널에서 모든 승객들은 2주간 격리에 대한 방역 의료진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 승객들은 상황센터로 전달되는 개인적 자료 이용에 기꺼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격리 위반 사건

을 신속히 밝히고 코로나19 감염 사슬의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14일간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감독이 해제된다.

'안전한 도시' 종합 프로그램기구는 사할린 주민들이 충실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는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24시간 안면 생체인식 시스템이 1000대 이상의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의료용 마스크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다 해도 지능적 감시카메라 판독에 문제는 없다.

의무적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보는 즉시 법 집행부에 전달되어 재판에 넘겨진다. 조치 위반에 대한 거액의 벌금, 엄격한 처벌과 함께 즉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미 사할린 주민들의 격리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은 200만 루블리에 달한다.

상황센터는 '사할린 온라인'과 '사할린 온라인 비즈니스'와 피드백 서비스 작업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덕에 팬데믹 상황에서 사할린 주민들과 기업가들을 위한 지원 조치에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 센터가 하는 또 다른 기능은 사할린 지역에 무단 쓰레기 매립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만들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사할린 지역 초고령층 인구 984명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현재 사할린주 영구거주자 수는 48만8257명으로 이 중 도시 인구 40만2,063명, 농촌 인구8만6,194명이다. 지난해에 비해 거주민은 1381명 감소했고 그중 자연적 감소가 324명, 주거지 이전으로 1057명이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사할린 주의 연평균 거주 인구는 48만 8948명이었다.

2020년 1월1일 기준 사할린 지역 도시 인구 비중은 82.3%이다(2019년 1월1일 기준 82.2%).

예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사할린 지역 전체 인구에서 주요 연령층 비율은 근로 능력 연령층이 56.2%, 미성년이 19.8%, 고령층이 24%로 드러났다(2019년 1월 1일 기준 각각 56.6%, 19.7%, 23.7%).

사할린 주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 인구 비율이 더 높게 드러나며, 예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현재 여성 인구 비율은 51.7%이다(2019년 1월 1일 기준 51.8%).

예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사할린 지역의 초고령층(90세 이상)인구가 984명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19명이 100세 이상으로 9명이 남성, 10명이 여성이라고 사할린 통계국 보도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 КОРЕЕ ПРИНЯЛИ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29 апреля поздно ночью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 занавес окончания работы парламента 20-го созыва в этот день была положительно решена судьба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этот день депутаты рассмотрели 95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включая проект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бюджет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езусловно самым важным стало принятие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азличные варианты которого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в корейском парламенте, начиная с 2005 г.

Последний вариант законопроекта успешно прошел слушания в Комитете по внешним связям и объединению, а также юрид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В голосован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му законопроекту из 290 депутатов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158 человек, все они высказались за принятие Зако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кон был принят единогласно.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юридически закрепил положения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ля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еревод некоторых основных положений (перевод сделан Жанной Тен, директором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О чем собственно этот законопроект и кого он коснётся?**

1). О расширении лиц, которые попадают под категорию «Репатрианты»:

– до сих пор к ним относили только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дившихс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 с принятием закона к ним будут относиться и их дети, один из которых (сын или дочь с супругой или супругой) наделяется правом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2). Детям (сыну или дочери с супругой или супругом)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натурализации льготы: авиаперелет, стартовый капитал для адаптации, жильё, пенсии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отметила, что принятие закона стало положительным шагом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Это результат дея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идцати лет работали над решением наших проблем.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ейчас мы усиленно работаем над конкретным наполнением закона, высказываем свое мнение, точку зр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направляем в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чень надеемся, что они будут учтены, – сообщила Пак Сун Ок.

Надо отметить,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удет регулироваться Указами президента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инистерств. Для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нужны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от сахалинцев. Закон вступит в действие 1 января 2021 г.

Ниже публикуем часть предложений РООСа по Спец.закону.

1. Закрепить официальный термин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사할린한인)» - это корейцы, прибывшие на Сахалин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и рожденные до 2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которые в силу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их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их потомки.

– Восстановить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без утери гражданства страны проживания.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ринять на основ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2. Посемейную репатри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существлять с принятием правовой базы Парлам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Защищать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 семей прямых наследников умерших до начала репатриации 1 поколения (29 сентября 1992 г) и тех, кто не во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авом репатриации, из-за нежелания оставить своих детей на Сахалине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е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правом репатриации, и их детей.

• семей прямых наследников выехавших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умерших там

•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 деть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ыехавшим на ПМЖ.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овесть Ян Вон Сика, опубликованную в свое время в газете «Коре иль-бо» (Алма-Ата)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 Далёкое-близко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весть

Ян Вон Сик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посвящается

Когда отмечалось 40-летие победы над фаш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ей, в нашу редакцию (в то время «Ленин кичи») поступила любопытная статья, написанная коренной москвичкой Екатериной Цой. Автор сообщала, что в предвоенные годы уже десятки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обучались в разных вузах Москвы, ежегодно, хотя бы раз, встречались и проводили вместе вечера.

Один из таких вечеров состоялся в марте 1941 года. Он стал последним. Спустя 3 месяца началась война, и многие студенты ушли на фронт или в трудовую армию. Но вернулись не вс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тому – мемориальная доска, установленная в фойе механ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ГУ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где среди имен павших есть корейское – Геннадий Васильевич Хан. Возможно, на мемориальных досках, которые есть и на остальных факультетах МГУ или в других вузах Москвы, тоже высечены корейские имена.

К сожалению, эта стать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е сохранилась до наших дней и не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Ведь «Ленин кичи» издавалась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о, думаю, не это явилось причиной того, что статья не увидела свет. В ней затрагивались события 1937 года и тот факт, что корейцы были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воинской обязанности и не призывались на фронт.

Тогда, в начале 1985 года, еще полностью сохранялся советский режим в публицистике. Когда отмечалось 50-летие победы, я попытался написать хотя бы маленький рассказ или киносценарий на основании этой статьи, но не довел это дело до конца. Однако идея не покидала меня, тем более, что москов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жизнь мне очень близка. Я жил одно время в старом общежитии МГУ, что на Строммынке, и о войне знаю не понаслышке. Тема войны и судьбы людей военных лихолетий всегда волновали меня.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я переписал все имена и титулы, о которых говорилось в статье, в свою записную книжку.

Екатерину Цой знаю хорошо: она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много писала о жизни известного всем нам коре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 родоначальник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ё Мен Хи. Ее статья и легла в основу дан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документальной повести, где она фигурирует как Елена.

### Живы в памяти нашей

8 марта 1941 года в одном из домов собрались около десяти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 выпускников того года из разных вузов Москвы.

Повод был удобным – отмеча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В то предвоенное время собираться более чем трем корейцам в одном месте было небезопасно.

Как обычно, собрали энную сумму, купили продукты, спиртные напитки и скромные подарки девушкам, а девушки готовили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по которым все за год успели соскучиться. Почти каждый парень имел один-единственный костюм, который служил ему и в будни, и в праздники, с той лишь разницей, что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брюки «выглаживали» еще накануне: их чуть смачивали и аккуратно раскладывали под матрас. Что касается женской половины, то девушки есть девушки: надевали лучшие платья, пускали в ход нехитрую косметику, дешевенькие духи и на глазах расцветали.

Когда все сели за обеденный стол, праздничное торжество открыл Сергей Ким. От имени мужчин он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ил очаровательных, добрых и ласковых девушек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женским днем 8 Марта, пожелал им большого счастья, любви, здоровья. Затем пожелал собравшимся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ть учебу,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ы, что и будет для каждого путевкой в жизнь, идти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и мечты и, конечно же, быть счастливыми. А в завершение сказал:

– Официальная часть закончена, теперь перейдем к веселой части нашего вечера. Давайте сначала поедим, а то мы уже изрядно проголодались. Есть же корейская поговорка: «Как бы прекрасны ни были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можно любоваться ими лишь в состоянии сытости». Тогда же избрали и тамаду. Им единогласно стал Борис Ан.

Сергей шуточно объявил результат прямого и открыт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 По воле трудящихся вакантную должность «предводителя вечера» занимает историк по имени Борис, сроком на 4 часа, то есть до истечения 24.00 сего марта 8-го дня. Ну, дружище, веди, пожалуйста,

наш вечер только по курсу веселья, – напомнил Сергей. И Борис взял бразды правления в свои руки. По началу все вдоволь насладились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й, потом вволю наговорились на родном корейском и веселились допозд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тамады каждый на том памятном вечере должен был показать хотя бы один коронный номер. «Ну, – обратился Борис, – кто начнет?»

Можно? – спросила Нина.

Она спела корейскую шуточную песню, все дружно засмеялись и зааплодировали. Следующий, выпускник авиацио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Алексей Ким, исполнил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Нонг Бу га». Сильный, приятного тембра голос взволновал всех, ему подпевали, просили спеть еще что-нибудь.

Гена, а ты что хранишь молчание, тебе невесело? – обратился Борис к сидевшему в углу юноше

– Почему невесело... – смущенно ответил Гена, выпускник МГУ, – просто у меня нет никакого таланта в пении.

– Неправда! Я знаю, ты прекрасно можешь свистеть соловьем, жаворонком.

– Давай, Гена, не робей! Здесь все свои, – сказал кто-то с места.

– Ладно, только строго не судите меня, если не так получится. В деревушке, где я жил в детстве, день начинался и кончался одним и тем же монотонным пением кукушки. Но сколько в этой монотонности было оттенков!

И Гена очень похоже ее изобразил.

– Скажи, Гена, какую гармонию ты находишь в своих математических формулах? – спрашивает кто-то.

– В математике такая же гармония, как и в природе.

– Ты молодец, Гена! Надеемся, ты непременно станешь корейским Лобачевским, – сказал Борис.

Все с симпатией смотрят на смущенного Геннадия.

– Среди нас присутствует единственный человек в военной форме. Это слушатель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связи Григорий Ким. Дадим ему слово, – предложил Борис.

– Спасибо, друзья! – улыбнулся Григорий и вдруг, посерьезнев, сказал: «Мы живем в тревожное время. В Европе фашисты хотят установить новый порядок. На востоке японские милитаристы вынашивают мысль 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сферы взаим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великой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Это такой же сумасбродный план, как и «новый порядок в Европе». Оба «порядк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раздел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 линии Урала, с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Рад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этих целей фашисты уже давно готовятся к войне. Они могут напасть на нас внезапно.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 должен быть начеку. Однако у нас,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есть серьезная проблема. М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1937 году, оказались неохваченными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ой, т.е. отстранены от службы в армии. Но это не значит, что мы должны оставаться равнодушными к событиям в мире.

Все близко к сердцу приняли эти слова. Мужская молодежь высказывала готовность освоить военное дело. Девушки с гордостью говорили об учебе на курсах медсестер.

– Я прочту одно патристическо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написанное советским корейским поэтом Тё Мен Хи, – вдруг предложила Лена и прочитала ег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звав общий восторг.

– Друзья, я спою вам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Доради», – взяла инициативу в свои руки Дуся Хан из с/х Академии им. Тимирязева и исполнила ее вдохновенно, ярко.

Заиграла музыка, все захотели танцевать. Нину пригласил на танец Геннадий Хан. Нина, покраснев, ответила: «Я не умею танцевать вальс. – Потом, лукаво посмотрев на Гену, добавила: – Лишь немного лезгинку». Гена, ласково посмотрев ей в глаза, спросил: «Куда вы получили назначение?»

– У меня есть угол в Москве, поэтому комиссия по распределению сочла возможным оставить меня здесь. А вы, Геннадий?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РК отметили вторую годовщину подписания Пханмунчжо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27 апреля на станции Чэчжин,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в уезде Кос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второй годовщины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27 апреля 2018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он Ын встретились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единени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Юга и Севера.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им Ён Чхоль заявил, что соединение восточного участка меж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может стать первым шагом на пути к мирн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процветанию двух Коре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мерено приступить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участка длиной 110 км от Каннына до станции Чэчжин в ближайšie два года. Если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Юга и Севера удастся соединить, то из Пусана по побережью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ехать через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Россию и Европу. 23 апр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ризнало данную инициативу проекто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позволит не проводить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проекта, тем самым сократив его реализацию.

##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К рассмотри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этапного открытия шко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рыти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Об этом заявил 27 апрел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Чон Сэ Гюн,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По его словам, в начале 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должно сообщить о процедуре и датах открытия школ.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рытия школ средней и старшей ступеней.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учесть, что школам потребуется как минимум неделя на подготовку к очному началу семестр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COVID-19 удаётся сдерживать, не всегда удаётся установить способ заражения.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затяжного влияния пандемии,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и группов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ариант мер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после сбора мн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их рассмотрения комитетом по карантину.

## 38 North: Личный поезд Ким Чон Ына не покидал станцию Вонсан с 21 апреля

Личный поезд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находится на станции Вонсан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траны с 21 апрел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американски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38 North,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йся на ситуации в КНДР. О точном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и самого Ким Чон Ына и состоянии его здоровья ничего не известно. Подозрения о проблемах со здоровь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подкрепляются длительным отсутствием Ким Чон Ына на публике. В СМИ даже появилась фальшивая новость о смер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якобы объявленн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телевидением. Между те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е подтверждает каких бы то ни было изменений в ситуации на Севере, а америка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заявляет, что слухи о проблемах со здоровьем Ким Чон Ына не имеют никаки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общили, что Ким Чон Ын направил послание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строителям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траны.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мож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защитные маски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г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защитных масок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к уязвим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ечь идёт о корейцах, усыновлённых иностранными родителями, и одиноких пожилых людях. Кроме т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латног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асок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роживающим в странах, где наблюдается их дефицит. После относительной стаби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с вирусом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далось наладить поставку защитных масок внутри страны, хотя их экспорт до сих пор находится под запретом.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тправило маск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в Европе через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Евросоюза. (RKI)

##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лечили "главную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ьницу" COVID-19

"Большая №31" или "супер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ьница" COVID-19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конец-то признана здоровой и покинула больницу, пробыв на лечении более двух месяцев. Это самый длинный для страны срок исцеления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эрии города Тэгу, 61-летняя кореянка, которая известна как "большая № 31", 24 апреля покинула клинику города, где находилась с 17 февраля. Два теста подряд дал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На лечении женщина находилась 67 дней.

Правда, эксперты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понять, где и как она заразилась. Кореянка не была за границей, не контактировала ни с кем из известных носител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ле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на ней были опробованы самые разные способы лечения, но долгое время они не давали никакого эффекта. Похоже, что организм в итоге сам справился с COVID-19. На лечение заболевшей из госказны было потрачено примерно 30 миллионов вон (около 24 тысяч долларов США).

Отметим, что "большую № 31" заочно знает вся Корея. Да и во многих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о ней слышали. 61-летнюю женщину,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ицей секты "Синчхонджи", считают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вспыш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Тэгу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этого года. От нее заразились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новые волн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Тогда и началось тоталь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верующих. В итоге у 4261 прихожанина "Синчхонджи" был выявлен коронавирус. Если взять этих больных, а также заразившихся от них ближайших родных, друзей и близких, то на них придется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случаев инфицирова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 способность заража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что проявляется у ред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больных, "большую № 31" назвали "супер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ьницей". Но ряд экспертов уверены,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заразил всех кто-то другой, кого так и не нашл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Решение по проблем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нятое РООСК и высланное в адрес правительств Япон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4 апреля 2020 г.

### Решение

1. При обсуждении проекта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ществам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Японии» необходимо обязательное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его на Сахалине с правом совещательного голоса.

2. Принять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по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Закрепить официальный термин: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사할린한인) - это корейцы, прибывшие на Сахалин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и рожденные до 2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которые в силу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их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их потомки.

— Восстановить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ез утери гражданства страны проживания.

Право на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реализовывать на основе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2. Посемейную репатри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существлять с принятием правовой базы Парлам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Защищать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 семей прямых наследников 1 поколения, умерших до начала репатриации (до 29 сентября 1992 г) и тех, кто не во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авом репатриации, из-за нежелания оставить своих детей на Сахалине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е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правом репатриации с детьми.

-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 деть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ыехавшим на ПМЖ

3. При обсуждении спецзакона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включить в состав комите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его на Сахалине.

4. Выплата компенсаций за моральный и материальный ущерб, нанесенный Японией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оставшимся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 Выплата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признанным пострадавшими или их наследникам, не имеющим право получить данную помощь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5. Продолжит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граммы репатриации 1-го поколения.

6. Предоставить субсидируемые расходы на проживание в размере 300 долларов США в месяц для лиц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7.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по программе «Недельное посещ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для детей, чьи родител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умерли и не смог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ом посетить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о лини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8. Поддержк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эксплуатации дома престарелых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9. Предусмотрет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авиабилетов в оба конца для одн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родителей, уехавших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23 апреля 2020 г.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В КОРЕЕ ПРИНЯЛИ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3. При обсуждении спецзакона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включить в состав комите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его на Сахалине.

4. Выплата компенсаций за моральный и материальный ущерб, нанесенный Японией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оставшимся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Выплата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признанным пострадавшими или их наследникам, не имеющим право получить данную помощь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почтовых сбережений (насилова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5. Поддержка в сохранении и развит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для 3-го, 4-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оставшихся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 поддержка СМ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сохран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памяти о трагической судьб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ем самым мы сохраним нашу историю и передать ее по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лее 200 сахалинских ветеранов получают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Акция, которую организовал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и бизнес, призвана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м ветеранам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орзины с продуктам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бесплатно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В наборы входят мясная и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товар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 Учитывая, что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ходятся в группе риска, мы тщательно соблюдаем все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бесконтактная доставка. По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ветеранами пакет с продуктами оставляют у двери квартиры, либо передают через соседей,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азвит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оцзащиты Виктория Автух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также вносят свой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заботу о людях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85 хозяйствующих субъ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гают жител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Приобретаются термобоксы, термосумки, чтобы доставлять свежую продукцию людям, находящимся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 На эти цели наша компания выделила окол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оргов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Ольга Дегтярева. – В это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очень важно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тем, кто в этом по-настоящему нуждаетс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бизнеса и власти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ет горячая линия: 8-800-201-00-99. По этому номеру пожилые люди и други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оказавшие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ложил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о ситуации по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зидент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вел с главами регионов совещание по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м мерам. Среди докладчиков выступил сахалинский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 о продлении нерабочих дней в стране до 11 мая включительно.

– Впереди у нас череда больших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а между ними рабочие дни – 6,7 и 8 мая. Мы знаем, что и в обычной ситуации многие бы не работали – брали отгулы и отпуска, а сейчас тем более нельзя рисковать. Поэтому считаю правильным объявить эти три дня нерабочими с сохранением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с учетом всех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период нерабочих дней продлится до 11 мая включительно. Но, обращаю ваше внимание, при строгом соблюдени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 принятых сейчас в регионах,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коронавирусом оста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в стран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8 апреля подтверждено всего 22 случая инфицирования. Уже выздоровели 19 человек, трое находятся на лечении. Всего под медицинским наблюдением – 5,5 тысяч человек.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заболевания, принят комплекс мер. Власть региона держит ситуацию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С 28 марта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100-процентное обязатель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всех прибывающих в регион. В аэропортах, в морских портах делаем экспресс-тест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получить результаты уже через 15 минут, –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главу государст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сех здоровых направляем на 14-дневную обсервацию. Сахалинцы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проходят изоляцию в домашних условиях. Больных помещаем в инфекционный госпиталь.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м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компьютерную томографию легких, в день проводим около 1500 тестов и 500 КТ. Условием снятия с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блюдения является прохождение КТ легких и наличие двух отрицательных тестов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а готовность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ьной части и по снабжению.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е, которую начал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лава области добавил, что вся акту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собираетс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ситу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Это позволяет принимать оперативные решения, чтобы болезнь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лась.

Так, накануне с соблюдением самых строгих мер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няли рейс с туристами из Таиланда. Пассажиры летели в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костюмах и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прошли экспресс-тестирование. У одного из прибывших тест оказал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м, его немедленно направили в инфекционный госпиталь. Контактные лица при этом отправлены в изолятор, а остальные пассажиры – в обсервацию.

Подобные меры позволили обеспечить непреры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люче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ех,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по нефтегазовым проектам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Сегодня, отметил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тровная экономика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требований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степенно возвращается к привычному режиму работы.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открылись салоны красоты и парикмахерские, а также ряд магазинов.

– Мы не торопимся и действуем осторожно, но у нас готов план постепенного открытия временно работа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касается отдельно стоя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омтоварных магазинов. Все шаги будем согласовывать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В регио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остались без работы. Мы следим за тем, чтобы была выплачена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собия для безработных,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бавил он, в целом внимательно и ответственно отнеслись к введенным ограничениям. По статистике, лишь 3 процента граждан допускают нарушения санита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се возникающие у людей вопросы снимаются на «прямых линиях»,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еженедельно.

– Мы не снижаем интенсивность работы и продолжаем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меняющуюся ситуацию, чтобы обезопасить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очу отметить слаже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 всех структу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шении всех проблемных вопросов. Так будет и впред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нтактных» профессий тестирую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специальном пункте

Его организовали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едики обследуют тех, кто по долгу службы может столкнуться с зараженными COVID-19.

Диагностику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ерсонал обсервационных пунктов, сотрудник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работники 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олонтеры,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профессий, которые имеют риски инфицирования. Такая мера позволит оперативно выявлять зараженных и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рис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 Мы открыли кабинеты на предмет диагностики COVID-19. Проводим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центре и выезжаем в обсерватори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Составлен график забора анализов, сформированы списки, – говорит главный врач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лег Саяпин.

Ежедневно сотрудник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готовы проводить анализы для 300 человек, из них 100 –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учреждении. Потоки пациентов разреши,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контакты. Забор биоматериала на COVID-19 медики проводят в недав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ом крыле здания с отдельным входом.

Здесь же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пациентов, приписанных к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му отделению: на диагностику можно прийти не только с направлением от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но и в случае беспокойства за здоровье, без признаков ОРВИ и гриппа.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обратившись на линию 1-300 или на стойку администратора. Результат анализа будет известен через 2-3 дня.

– На забор анализа уходит 2-3 минуты, – говорит сотрудница одного из обсерваторов Алена Иванова. – Это нужное дело. Особенно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Ведь от заражения никто не застрахован. Сдаю анализ, чтобы быть уверенной, что полностью здорова. Не хотелось бы стать источником заражения для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здраве отмечают, забор анализ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 всему региону.

## В ряде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одят особый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й режим

Это связано с повышенной угрозой возгорания сухой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в лесах и зеленых зонах региона в весенний период. Жителям не рекоменду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источники открытого огня. Не следует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также собираться на природе большими компаниями – из-за риск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й режим ввели в Углегорском и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к нему присоединятся Анив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а такж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анее особые правила заработали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Холм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и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ах.

В период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режима островитянам запрещено разжигать кост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як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и проводить работ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ткрытого огня. Необходимо убирать за собой мусор, поскольку он может стать причиной возгорания.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огня следует немедленно звонить по единому номеру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112).

Также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напоминают о том, что собираться большими компаниями сейчас рискованно, в том числе из-за угроз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 Я призываю островитян максимально обезопасить себя и своих родных.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мировая практика, самый эффективный способ профилактики COVID-19 – самоизоляция.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хорошо мы будем её соблюдать, зависит скорость выхода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из зоны риск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ериод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режим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штрафы: на граждан от 2 до 4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 от 15 до 30 тысяч; на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 от 200 тысяч до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отдельных случаях виновнику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грозит уголо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плоть до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получил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олее 6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закупку лесопожарной техник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ряду с Бурятией и Забайкальским краем одна из первых приобрела такую технику.

В лесопожарные формир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же поступили 19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ашин. Это бульдозеры, вахтовые автобусы, лесопожарные машины, гусеничные снегоболотоходы, седельные тягачи с прицепами, автомобили УАЗ. В этом году закупят еще 11 единиц: 5 автоцистерн, 3 грузовых машины, 2 лесопожарных трактора, 1 автотопливозаправщик.

Как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транспорт позволяет быстро добираться до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лесных участков. Как следствие – повышается оперативность тушения пожаров, уменьшается ущерб природе.

##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двел итоги зимнего сезона

Н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декабря по март побывало более 165 тысяч посетителей – это почти на 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сезоне 2018/2019.

В конце марта 2020 год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шлось закрыть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Тем не мен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за четыре месяца превысило полноценный пятимесячный сезон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этой зимой побывали не только любители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и сноуборда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о и гости из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Таиланда, Китая, Японии, Кореи, Нидерландов. Общее число проходов через турникет – 1 145 648 раз.

Нынешний сезон выдался насыщенным на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рупнейшим из них стал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Всемир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 самые масштабные горнолыж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ие в них приняли 40 спортсмен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США, Францию, Италию, Финляндию, Польшу, Швейцарию, Словакию, Норвегию, Австрию, Россию. Все они – участники,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разных лет. С 9 по 21 февраля параатлеты состязались в слаломе, слалом-гиганте, супергиганте, гигантском слаломе, супергиганте и новой дисциплине – параллельном слаломе.

Не успели трассы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попрощаться с иностранны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как прибыли 15 российских паралимпийцев для участия в чемпионате страны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реди лиц с пораж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ПОДА).

Финальным аккордом сезона стали чемпионат, кубок и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20 атлетов из 2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первые сахалинские старты завершили не только региональный сезон горнолы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но 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Традиционно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л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й. Среди них – чемпионат, кубок и перве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кубок федерации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ошло множество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массовый костюмированный спуск «Новогодний переполох», конкурс красоты «Снежная королева»,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ценителей музыки «Шепот звезд», а также День влюбленных, День снега, Масленица, Горная сказк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2020년「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에게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외동포 문학 공모전에 재외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는 입양수기 부문을 신설하여 입양동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오니, 해외입양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및 주관 : 재외동포재단

후원 : 외교부

### 1. 응모 자격

- 성인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 청소년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 부문 :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중·고등 부문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성인), 최우수상(청소년)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불가

- 입양동포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

### 2. 공모 부문 및 주제

- 성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시·단편소설 : 자유주제
  - 체험수기 :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
- 청소년 (글짓기)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에서의 일화 소개
  - 한국 방문 및 한국어 학습 경험담
  - 기타 자유로운 주제 (자랑스러운 한국인,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낀 체험담 등)
- 입양동포 (입양수기)
  - 본인, 가족의 정체성 확립 여정 및 '뿌리' 탐색기
  - 기타 자유로운 주제 (가족상봉, 한국 방문 경험담 등)

### 3. 부문별 원고 분량

부 문		출품편수	1편당 원고 분량	비 고
성 인	시	3~5편	제한없음	※ 미발표 한글 창작물
	단편소설	3편 이내	글자수 1만6천자 내외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기준 15쪽 내	
	체험수기		글자수 1만자 내외	
청 소 년	중·고등 학생	3편 이내	글자수 3천자 내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미발표 한글·영 창작물
	초등 학생		글자수 2천자 내외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입양동포	입양수기		글자수 1만자(한글), 4천8백자(영문) 내외 -작품응모서식 기준 10쪽 내외	

※ 작품응모서식은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http://www.korean.net))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매수는 원고지 또는 작품응모서식 기준 중 한 가지 반드시 충족
- ※ 원고 분량 80% 미만 또는 150% 이상은 탈락

### 4. 심사 및 시상내역

-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예심 → (3차) 본심
-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시상내역 : 총 34명 및 한글학교 2개교 선정, 총 상금 사천일백삼십만원

구 분	상 별	인원(명)	시상 내역	비 고
성 인(3개 부문)	대 상	3	삼백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우수상	6	이백만원, 상패	부문별 2인
	가 작	9	오십만원, 상패	부문별 3인
청 소 년(2개 부문)	최우수상	2	일백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우수상	4	오십만원, 상패	부문별 2인
	장려상	6	삼십만원, 상패	부문별 3인
입양동포	대 상	1	삼백만원, 상패	
	우수상	1	이백만원, 상패	
	가 작	2	오십만원, 상패	
한글학교	특별상	2개교	이백만원, 상패	
<b>총 계</b>			사천일백삼십만원	

※ '한글학교 특별상'

-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정규(주말) 한글학교 대상
- 청소년 부문에 응모한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한글학교에 수여
- 학교별 본심 진출작품수 및 수상작품수를 점수화하여 선정

###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4.1(수) ~ 5.31(일) 23:59, 한국시간 기준(마감일 접수 요망)

나. 접수방법 :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http://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 코리아넷 공지사항 또는 팝업존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 하여 첨부파일로 작품 제출

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코리아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하기 클릭  
 ○ 응모작품 :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http://www.korean.net)) 공지사항에서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 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첨부파일명은 응모자명, 응모분야, 작품명 순으로 기재  
 ※ 재외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체류자격 증빙서류의 경우 **수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제출**(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번호 등 삭제 요망)

###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발표 : 8월 중 수상자에 한 해 개별 통보, 코리아넷 홈페이지 게시
- 시상 : 수상자는 거주국 관할공관에서 전수식 개최 예정

### 6. 기타 및 유의사항

○ 응모자는 신·여성작가 등 제한 없이 응모자격 해당자에 한하며, 장르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응모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신청서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미흡할 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서류와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자의 경우 <1>의 응모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증빙서류를 수상자 발표(개별 통지) 후 2주일 내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혹은 자격 미달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 국내외 여타 기관 또는 매체(신문, 인터넷매체 등)에 기발표 작품
-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나,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보상은 상금으로 대체합니다.
-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수상작은 수상작품집 책자(비매품)로 출간되며, 추후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활용 예정

☐ 문의 :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박한솔 직원

○ 전 화 : +82-64-786-0247 / 이메일 : [culture@okf.or.kr](mailto:culture@okf.or.kr)

(재외동포재단 제공)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Традиционно открытие поискового сезо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т в конце апреля – начале мая. Однако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пандемии все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егионе отменили. В частности, перенесли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е сроки проведение автопробега по югу Сахалина – он состоится в августе. Акция охватит не только южную часть острова, но доберется и до 50-й параллели.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планируются митинги и возложение цветов к памятникам погибшим защитникам Отечества.

Тем не менее сахалинские поисковики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Вечный полёт". Небольшие группы (по 2-4 человека) совершили полевые выезды на места падения военного самолет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Отметим, проект "Вечный полёт" ранее выиграл гран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его рамках активисты организуют поисковые экспедиции,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 захоронения погибших военных лётчиков.

Помимо полевых выездов, поисковики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у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удьба солдата" – узнают о судьбах погибших и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а также уточняют боевой путь ветеран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заявку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в [онлайн-приемной](#).

Напомним, за 7 лет добровольцы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захоронили около 150 тысяч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установили более 8 тысяч имен. В 2020 году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рганизуют 2248 поисковых экспедиций, сообщает ПСО.

## Южносахалинец пробежал 91км до Холмска за семь с половиной часов

Островной легкоатлет Виталий Плетнев преодолел 91 километр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Холмска без остановки и всего за 7 часов 31 минуту. Свой ультрамарафон он посвятил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Старт был дан утром 18 апреля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летнев избрал средний темп передвижения, бежал без остановки. На каждый километр он затрачивал примерно 4 минуты 48 секунд.

На протяжении 91 километра отчаянного марафонца на двух машинах сопровождали товарищи по спорту.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силы на весь путь, рацион бегуна в тот день составили изотонические гели и электролиты.

Сердце Плетнева в минуту выдавало около 170 ударов. Держался стойко, но икры ног все же сводило, особенно после затяжного холмского перевала. Но сахалинец не сдался и финишировал спустя 7 часов 31 минуту.

(Сахалин и Россия: Антонина Иванова)

заявку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в [онлайн-приемной](#).

Напомним, за 7 лет добровольцы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захоронили около 150 тысяч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установили более 8 тысяч имен. В 2020 году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рганизуют 2248 поисковых экспедиций, сообщает ПСО.

## Южносахалинец пробежал 91 километр до Холмска за семь с половиной часов

Островной легкоатлет Виталий Плетнев преодолел 91 километр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Холмска без остановки и всего за 7 часов 31 минуту. Свой ультрамарафон он посвятил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Старт был дан утром 18 апреля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летнев избрал средний темп передвижения, бежал без остановки. На каждый километр он затрачивал примерно 4 минуты 48 секунд.

На протяжении 91 километра отчаянного марафонца на двух машинах сопровождали товарищи по спорту.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силы на весь путь, рацион бегуна в тот день составили изотонические гели и электролиты.

Сердце Плетнева в минуту выдавало около 170 ударов. Держался стойко, но икры ног все же сводило, особенно после затяжного холмского перевала. Но сахалинец не сдался и финишировал спустя 7 часов 31 минуту.

(Сахалин и Россия: Антонина Иванова)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ое соболезнование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о поводу безвременной кончины Шин Николая Семёновича. Скорбим и помним.

###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р. Кимпхо Тонгдиныб

한국 김포에 영주귀국하신 신 니콜라이 세묘노위츠 89세를 일기로 사할린에서 별세하셨음을 부고하고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포 동진읍 사할린동포회

1974-1982년 간 <레닌의 길로 (현 새고려신문)>신문사에서 사상부, 서한부 부장으로 활약하셨던 신 니콜라이 세묘노위츠 님께서 향년 89세, 2020년 4월 29일을 일기로 중환 중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비애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전 및 현 사원들로부터

#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http://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http://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Платформа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н (주필) 배 워트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